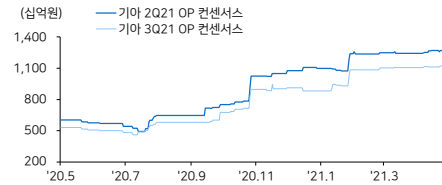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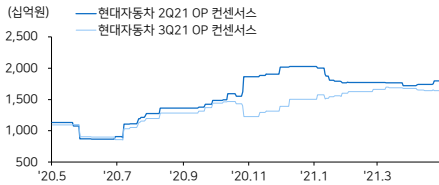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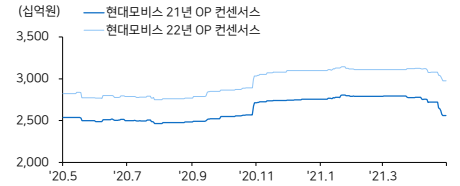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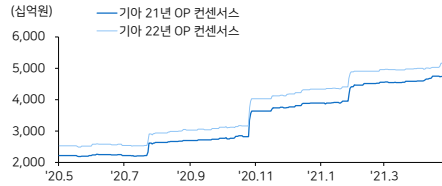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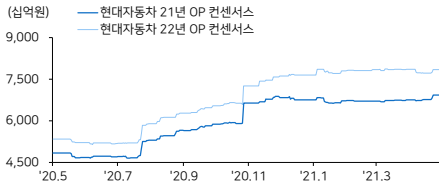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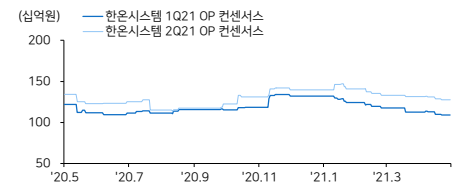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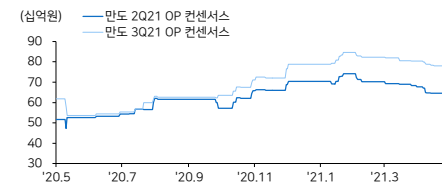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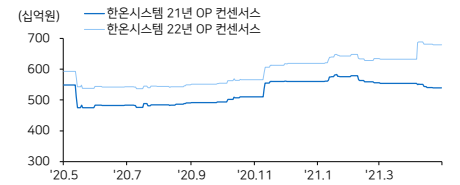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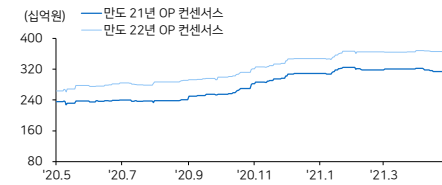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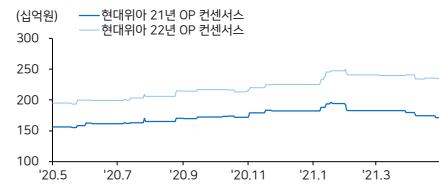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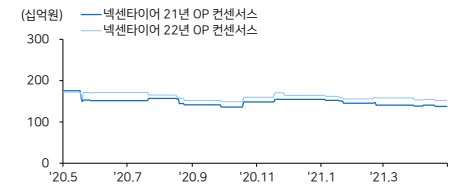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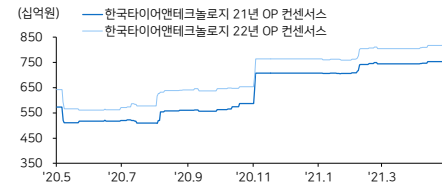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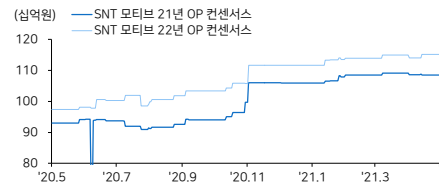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현대차·기아, 유럽 전기차 시장 '톱3'...테슬라 모델3 베스트셀링 '1위' (THE GURU)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 1분기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톱3'를 차지함. 1위는 VW, 2위는 르노-닛산, 3위가 현대-기아로, 테슬라는 4위를 기록함. 다만 유럽 1분기 베스트 셀링 카는 테슬라 모델3가 차지함. <https://bit.ly/3eaNMBU>

### German automakers rule the US luxury market. Genesis is to change that (abc News)

현대차 제네시스는 미국에서 세련된 디자인과 디테일에 대한 관심으로 주목받는 중. 제네시스 북미 사업부 CEO Rosso는 'GV70과 GV80으로 판매물류의 큰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언급함. <https://abcn.ws/3edQLcP>

### 포드, '차세대 EV' 폭스바겐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된다 (지프코리아)

최근 포드가 폭스바겐 MEB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향후 2~3주 안에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함. 포드 유럽법인은 '독일 쾰른에 MEB 플랫폼 기반의 제 2 순차 전기차 생산 가능성이 검토 중'이라고 밝힘. <https://bit.ly/3h50yUj>

### '어? 기사님이 없네'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베이징서 달린다 (조선일보)

중국 베이징이 지난 2일 베이징에서 '무인(無人)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함. 운행 지역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릴 서우강 산업단지 내 3km 구역으로, 무인 택시는 8곳의 주요 거점을 오갈 예정. <https://bit.ly/3JXR6u6>

### 美정부 전방위 압박... 현대차, 전기차 현지 생산 가시화되나 (세계일보)

오는 7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할 기업평균연비규제와 관련해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업체에 대한 금전적, 제도적 인센티브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미국의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내용에 따라 현지 생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해석됨. <https://bit.ly/3b1RkEl>

### 반도체 품귀에 기아 이어 현대차도 읍성 댈어준다 (서울경제)

현대차는 아이오닉5의 출고를 앞당기기 위해 일부 옵션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힘. 여기에 포함된 옵션은 4륜구동(AWD), 컴포트 플러스 등으로, 아직 기본 사양을 빼고 출고를 앞당기는 '마이닉스 옵션'은 고려하지 않음. <https://bit.ly/3eNPYrY>

### 테슬라처럼 폭스바겐, 자율주행차 반도체집 직접 개발한다 (이데일리)

테슬라에 이어 대표 자동차업체인 폭스바겐도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고성능 반도체 칩을 직접 개발,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VW 디스 CEO는 '앞으로 가능하다면 자율주행 칩 관련 특허를 보유하길 원한다'고 언급함. <https://bit.ly/3nFgY7m>

### GM '멕시코서 2023년부터 전기차 생산...10억달러 투자' (연합뉴스)

제너럴모터스(GM)는 멕시코의 라모스 아리스코 공장에 10억달러를 투자해 현지에서 2023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함. GM은 이번 투자를 통해 현지 공장에 배터리 팩과 전기차 모터 등을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계획. <https://bit.ly/25jnQeR>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